

딸이 60대의 어머니 얼굴에 한방의 편지를 날려 눈두덩에 시퍼런 멍이 들게 만든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한 달 전 한국에서도 개봉된 영국 영화 'The Mother'에서다.

딸에게 한방 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어머니'는 얼마 전 남편을 사별한 후 교외에 있는 그들의 집에 도저히 혼자 살 수 없어 런던의 아들집으로 온다. 그러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족으로부터의 철저한 소외뿐이다.

'어머니'가 겨우 마음을 붙일 수 있게 된 상대는 아들의 친구로, 유부남이면서 지금 그의 딸과 열애중인 남자다. '어머니'는 딸 못지않게 이 젊은 유부남과 열애에 빠지고 이를 알게 된 딸이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 한방의 편지를 날리게 된 것이다. 어머니의 등의 하에 딸이 날린 그 한방의 편지는 어찌된 영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잡아주고 화해의 의미도 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얻어맞아 팔팔게 멍든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설명할 길 없는 서러움 같은 것이 묻어 나온다.

자, 이제 한국이다.

한국의 공중파 TV공영방송에서 내보낸 일일 드라마에서 맞벌이 부부의 며느리가 느닷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친 장면이 나왔다. 설마 일일 드라마 제작진들이 부모를 패는 영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윤리여, TV를 꺼라

화 '어머니'에서 힌트를 얻었을 리 없었지만, 그리고 스토리가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나 당일의 '올드미스 다이아리'는 노인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맞을만했던 '어머니'와 달리 아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 왔던 한국의 시어머니가 그것도 며느리에게 왜 맞아야 하는가. 그 며느리는 상대가 아기를 돌봐주는 파충류였어도 그렇게 뺨 수 없다. 그것은 제재 받아 마땅한 폭력이다.

방송사의 첫 반응은 '현실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였다. 그대 현실에는 그런 것이 있다. 문명

의 역사에서 어느 시대인들 열기와 패륜이 없었겠는가. 현대에서 열기와 패륜이 증가하고 있음은 인구의 증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구 증가만큼 윤리적으로 정상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 수도 그만큼 많아졌다. 그렇게 늘어난 '정상 기능'의 사람들이,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TV 화면에서 시어머니 뺨을 때린 며느리를 보고 분개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영방송의 파행은 끝이 없다. 얼마 전에는 TV생방송에서 두 명의 남자가 훌쩍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춤추며 무대를 누빈

장면이 나와 지금까지 시끄럽다. 세계의 미디어들은 이를 희한한 토픽뉴스로 전했다. 쏟아지는 비난에 지금은 풀이 죽어 있지만, 이들의 첫 반응은 '무대 공연에서도 하던 것으로 일종의 해프닝'이라 했다. 알몸 보여준 일을 예술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발상이었을 것이다.

해당 인터넷 기사에 '노출이 뭐가 나쁜가?'라는 댓글들이 올라와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기존사회의 경직된 사고에 충격을 가하는 이른바 '인디밴드'가 아닌가라는 것이다.

만약 TV프로 제작자들에게 '세상의 이면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거나, 제도권 비판의 실험정신 운운'하는 식의 의식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는 성숙한 오늘의 시청자 수준을 깔보는 것이다.

TV프로그램을 소화해 내는 오늘의 시청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가치를 평가해 내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 아니다. 높은 음악성과, 부족한 음악성을 충격적 파격으로 가려보려는 것의 차이도 구별할 줄 안다.

방송프로그램의 이러한 파행은, 기존의 가치관을 무조건 뒤집어 허물어뜨리는 것이 큰 변화에 앞장 서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그런 작악에 공영방송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삼보정재는 부처님의 교단에 보시된 깨끗하고도 귀중한 재산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고 관리하며 쓰는 것은 교단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데 과거 분명하게 삼보의 정재였던 것이 부당하게 빼앗겼거나 유실됐다면? 과거의 것이라 하여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의 업이 되어 현재의 삼보정재를 소홀히 하는 무관한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봉선사 등에서 망실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봉선사에서 1000여 평의 땅을 되찾았으며, 망실재산을 찾기 위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한다. 또한 부당하게 소유권을 잃은 사찰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회암사지 발굴 문화재 되찾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과 성과가 불교계의 망실 삼보정재 환수에 대한 관심을 올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이다.

망실 삼보정재 되찾기 노력을

이러한 큰일에 전 불교계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불교계 전체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콕의 역사를 겪은 불교계의 망실재산이 어디 한 두 사찰에 그칠 것인가? 그렇다면 범종단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루 빨리 이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우선 전국적으로 망실 삼보정재와 문화유산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해 적절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친일후손들의 사찰재산 소유권 주장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종계와 문화재 관련 학자들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 종단적인 차원에서 기구를 설립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바로 현실을 바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봉선사와 회암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해결을 계기로 불교계에 망실삼보정재의 환수를 위한 바른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현재의 삼보정재도 올바르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교 교수)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모래만다라 아름다움에 감탄

법륜사와 봉은사에서 모래만다라 특별전이 열렸다.

섬세한 모래를 쇠관의 떨림을 통해 정해진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너무 아름답고 세부적인 문양이 그려지는 것은 감탄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특히 일정 기간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만다라는 무상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전시회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한진현(대전시 중구 문화동)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 안된다"

고속철도면 출몰도시, 중요도시 한두 군데, 도착도시 이렇게만 세계 직선화해야 하는데 무슨 마술버섯마냥 이 도시 저 도시 세우다 보니 노선이 기형적으로 뱅뱅 돌고 금정산을 뚫을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우리나라는 뭘 하든지 산을 관통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조금만 돌아가면 시간은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주위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눈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데... 건설부 요원들의 무식함을 비판하고 싶다.

불자 마거렛(부다뉴스)

학생들 종교자유 이뤄져야

서울 대광고의 종교수업과 관련해 중

교자유정적연구원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이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이다.

당연이상의 당연한 종교자유가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불국토(부다뉴스)

독자

법당 앞의 로주대 이야기

로주대여 로주대여 법당 앞 붉은 화로에 피어나는 한 송이 연화 로주여 푸른 바다 위에 타는 불길 싸늘하여 정·해의 쌍성 등불마저 후·후 삼삼 외로움네

관패기는 옥력에 살이 쪼 솔모였고 이빨은 밖으로 녹신지 오래일세 달은 깊이 병이 들어 살아남아 기약 없네

등근 돌 수각은 나의 몸이요 그윽히 고인 물은 나의 성품이라 끝없이 솟아나는 물은 진여 자성의 노래와 춤이요 절절 넘쳐흐르는 물은 성품의 만 가지 작용과 나눔일세

운재 오산 수재 병 구름은 오대산에 있고 물은 병 안에 있구나

고향 잊은 나그네 구름이여 가는 곳마다 흑을 백이라 하는구나 슬프다 부처 중생 나뉘어 무엇하리 해는 저무는데 금산으로 가는 길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구나

로주대 붉은 화로에 피어나는 연화여 일체중생이 흥로 일점설인데 어찌하여 이 몸 태우지 못하여 한스러움만 날로 더하구나

홍로(해인사 스님)

이렇게 들었다 국민 위한 정치

"만일 왕이 자신을 보호하고 국가가 안락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백성들에게 쾌락을 성취하게 하고 이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금광명경>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저마다 어렵다고들 아우성이다. 8월 2일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지난 분기에 비해 8.6%나 감소했다고 한다. 도시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IMF 직후인 1998년 2분기 때 9.9% 감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아우성성을 질만도 하다. 특히 보건의료비가 적지 않게 줄었고, 이비용 비용은 14%나 감소했다. 머리 깎는 돈도 아껴야 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얘기가.

3월에는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경기 성남시 판교지역 주민 일부가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 신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저렇게 살 굴리기도 해보고 정부에 호소도 해봤지만 이제는 희망도,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 이 땅을 떠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과연 무엇에 매달려왔을까. 경제에 '올인'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초 다짐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돼버렸다. 통계청 자료와 판교지역 주민들 소식에 전해지던 바로 그 시간에 정치권은 불법도청 문제로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하며 사건이 미칠 영향에 대해 '주관할'을 핑기고 있었다.

정치권 얘기는 사실 지겹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기대할 것도 없다. 하지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애기를 들다보면 자꾸 분노가 치민다. 국적환수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국적을 몰수해 버리는 그런 법 말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명우(우재부 차장)

Advertisement for '수신통조고기피' (수신통조고기피) featuring a man in a suit and text about a 24-year wait for a product. Includes a phone number 02-968-0005.

Advertisement for '오행온구(썩뜸)기' (오행온구(썩뜸)기)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product and text about its benefits for health and digestion. Includes a phone number 02-521-6353.